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선정기

범용의 실크로드 보고서



예술과 지식, 또는 일상의 조각들에 대한 성찰이 바탕된 한 권의 책. 그건 곧 한 인격 개체의 지적 모듬이자, 문화적·사회적 교감에 다름 아니다. 시속時俗의 관심사를 소재로 삼긴, 거창한 문명 담론을 설과하건, 서정적 내면세계를 훑아보긴 상관없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한

끈질긴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가열찬 지성과 감성의 쌍곡선이 연출한 결과물이라면, 그저 반가워할 만하다. 충실한 편집과 포장으로 저작 의도를 빛낸다면 더 이름답고 좋은 책이다. 마침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민국조직위원회는 '한국의 문화적 아우라가 내연과 외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술성'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의 콘텐츠로 내세웠다. 그 취지에 심분 공감한다.

〈출판저널〉기자들도 그런 아우라가 담보된 저작물을 골라보려 쌍심지를 켜다. 작금의 신문 헤드라인을 염두에 둔 듯한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가 눈에 띄었는가 하면, '실크로드 다시보기'라 할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를 만날 수 있었다. 권명아의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하정룡의 《삼국유사 사료비판》, 김성환의 《나의 육필 가세집》, 이규일이 지은 《이규일의 미술사랑방》, 유명소의 《겨울해바라기》, 우석균의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 김영찬의 《독일건문록》,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도 주목받을 만했다.

폭력 시대의 책임은 사람과 체제 중 누구에게 있나?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는 그런 물음에 모티프를 두고 있다. 책은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일상과 의식의 저변을 해부하며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파시즘 체제를 위해 여성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강요됐음을 입증키 위해 신여성, 여자 스카이다단 등 대중적 이슈를 발굴해 실제적 이해를 가능케 했다. 또한 젠더정치와 '일본인 되기', '남성정체성 집단간의 차이', '남방 종족지와 제국의 판타지 등 파시즘적 도그마를 꼼꼼히 깨고 있다.

《겨울 해바라기》는 입양아 문제가 오래 청소년 성문제를 그 뒤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사회 구성원 모두 이를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유도한 소설이다. 13살의 입양아 철현은 한국에 돌아와 또래의 친구 동준의 집에 머무르며 '엄마 찾기'에 나선다. 그

러던 중 동준의 고등학생 사촌형이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후 가출하는 사건이 생긴다. 소설은 입양아 문제와 청소년 성문제를 교차시키며, 문제적 관점에서 이를 고민할 것을 독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열정과 혁명과 눈물과 투쟁의 대륙.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는 라틴아메리카만의 역사와 언어를 노래와 춤을 통해 여과없이 보여주는 색다른 기행서다. 저자는 현지 유학 시절 곳곳을 직접 방문하며 그들의 사는 모습과 생각을 관찰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안데스 골짜기에 자리잡은 오지 마을들을 찾았는가 하면, 노래와 문학에 남은 민초들의 한 서린 시연들과 탱고의 '오만한 귀족적 에로티시즘'을 대비시키고, 남반부의 신기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허상과 녹색사막 팜파의 서정을 그렸다.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는 소정의 인문학적 상식도 필요없는 책이다. 펼쳐들기만 하면 누구라도 빠르게 행간을 좇으며 책장 넘기느라 바빠진다. 그렇다고

경박하지도 않다. 정밀하게 자료를 연구·고증한 후 알기 쉽게 풀어 쓴 서술 태도엔 엄숙한 소명의식마저 배어 있다.

실크로드의 동서양 문명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길'을 밝히려는 학문적 노력은 역사와 문명의 속내를 파헤치는 작업이자 도전이다. 더욱이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는 그런 현학적 육

구와, 학부모로서 시대에 걸맞은 문명사를 일깨워야겠다는 사명감이 만난 모처럼의 지적 쾌거다. 그렇게 나온 남녀노소 범용의 든실한 실크로드 보고서가 10월 '이 달의 책'에 뽑힌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책은 모두 6장으로 나눠 비단길의 사람과 사물과 사실을 열개 엮었다. '비단길의 발자취'에서 세 갈래의 실크로드를 소개했고, 비단과 향료 등 호화찬란한 문명교류의 발자취를 '비단길에서 오간 진귀한 물품들'을 통해 들여다봤다. 특히 제6장 '비단길과 우리나라'에선 비단길의 동쪽 시발점이 한반도임을 강조하며, 그 길에 새겨진 우리 민족의 얼굴에 주목하고 있다. 정수일 교수 같은 이는 "내용은 물론, 열거리도 신선하고 창의적인 안내서이자 지침서"라고 극찬했다. 그 말이 결코 의례적 수사가 아님을 실감할 만한 책이다. **한**

